

완도군, 기초단체 첫 해양바이오산업 지원 조례 제정

종합·체계적인 산업 육성 기틀 마련
해조류 특화 연구단지 조성계획도 반영
국내외 기업 유치 등 미래 신산업으로

완도군은 해양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완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다.

이 조례는 해양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해양바이오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했다. 조례는 군수의 책무, 해양바이오산업 기본계획 수립,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해양바이오 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핵심 사업에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계획이 반영돼 이번 조례 시행으로 완도군의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 연구·제품 개발을 통한 해양바이오 기업 육성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조례 제정으로 해양바이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

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지자체 소멸 위기에 대응해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완도군 미래 대표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지난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완도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이 선정돼 총사업비 182억원 중 110억원을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기반 조성에 투자한다. 공동협력연구소·스타트업 센터를 2021년에 구축할 예정이다. 국내외 기업연구소 10곳과 스타트업 30개소를 유치해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산업화 촉진으로 해양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완도 해양바이오연구단지 조감도.

영광 굴비·모시송편 등 특산물 5t 미국 수출길

10개 품목 10만달러 상당

영광군은 최근 나주시 노안면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골든힐(대표 한문철)에서 '영광군 농수산물 미국 수출 선적식'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농수특산물 수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소비 부진은 물론 해외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 경기가 둔화된 가운데 이뤄낸 성과다.

미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인 굴비, 모시송편을 비롯해 찰보리 식혜, 고춧가루, 볶음고추장, 옛기름가루, 새싹보리 분말 등 10만달러 상당의 10개 품목이 수출길에 오른다.

영광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 난항 속에서도 영광군 농수산식품의 미국 수출이 이뤄져 기쁘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판촉·홍보 등을 통해 수출 물량 확대를 꾀하고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수출업체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운 기자 jylee@kwangju.co.kr

신안 우이도 풍성사구

출입금지 기간

2025년까지 연장

신안 도초면 우이도 풍성사구의 출입금지 기간이 오는 2025년까지 연장된다.

6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에 따르면 15일 종료 예정인 신안 우이도 풍성사구의 출입금지 기간이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풍성사구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대표 경관자원이지만 주변환경의 변화로 사구 침식이 가속화되면서 훼손됐다.

공원사무소는 풍성사구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모래이동 방해요인을 제거하고, 지형변화 모니터링 등을 시행해 사구 정상부에 모래가 쌓이는 효과를 얻었다.



국립공원공단이 신안 우이도 풍성사구의 원형 회복을 위해 출입금지 기간을 오는 2025년 말까지 연장했다. 왼쪽은 사구 침식으로 훼손된 2015년 모습이고 오른쪽은 원형 회복 중인 최근 풍성사구 모습.

하지만 사구 정상부의 퇴적된 모래가 성촌(북측)과 돈목(남측) 해변 방향의 사면을 따라 자연스럽게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공원사무소는 정상적인 경관자원을 복원하기 위

해서는 추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출입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계자는 "사구 정상부에 지속적인 모래퇴적을 유도하고 과학적인 모니터링

을 통한 관리방향을 전환해 우이도 풍성사구가 원형을 되찾을 때까지 복원사업을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영암농협 월출산 경관지구 6차 산업화 성과

잡곡 자급률 향상·경관관광 활성화·메밀 체인화 사업 등 속도

영암 월출산 경관지구 농업·농촌 융복합 6차 산업화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쌀 대신 대체작물로 메밀·유채를 재배해 잡곡 자급률을 높이고 월출산과 어울리는 경관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역축제 개최, 식품가공센터를 구축해 새로운 식품 개발 및 기(氣)찬 메밀 체인화를 추진한 결과다.

6일 영암농협에 따르면 농협은 최근 2층 회의실에서 '월출산 경관지구 농업·농촌 융복합 6차 산업 추진경과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전동평 영암군수와 우승희 전남도의원, 오정현 농협 영암군지부장, 월출산 경관지구 마을이장 등이 참석했다.

영암농협은 지난 2017년부터 월출산 경관지구에 농업·농촌 융복합 6차 산업화를 추진했다. 쌀 생산 조정제의 선제 대응과 벼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 작목 육성, 메밀 재배를 통한 지역 소득작목 육성과 잡곡 자급률(50%) 향상을 위한 활력이 넘치는 들녘경관체 육성, 국립공원 월출산 경관지구 조성으로 마을기업 육성 및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 메밀 경관작물 재배와 경관보전 활동으로 지역축제 개최, 농촌체험관광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등이다.

시행 4년차인 올해 메밀·유채 조성 면적 165ha(50만평)에 186농가(신규 83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소득은 1ha 기준 벼농사 대비 705만3000원이 증대됐다.

박도상 영암농협 조합장은 "농촌의 관광산업 육성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25ha로 시작한 월출산 경관지구 조성사업이 현재 165ha(50만평)로 확대됐다"며 "월출산 경관지구 6차산업화와 영암시



영암농협은 최근 2층 회의실에서 '월출산 경관지구 농업·농촌 융복합 6차 산업 추진경과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품농공단지 내 농협식품가공센터 기반 구축으로 새로운 식품 개발, 기(氣)찬 메밀 체인화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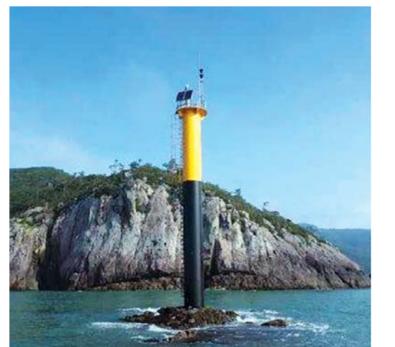
박 조합장은 "영암농협은 지역 농업·농촌에 찾아와 머물며 보고 즐기고 갈 수 있는 '농업·농촌

관광 테마파크'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 사업이 농업과 지자체 간 농업·농촌 융복합 6차 산업화의 성공적 현지 모델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진도 수품항 남쪽 간출암에

목포해수청, 등대 설치 운영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진도군의 신면 섬에 수품항 남쪽 해상에 항로표지시설인 점도남방등대(사진)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등대는 수품항 남쪽 간출암에 설치됐으며, 이곳은 만조와 짙은 안개가 낄 경우 수품항을 입출항하는 어선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했다. 간출암은 썰물 때는 바닷물 위에 드러나고, 밀물 때는 바닷물 속에 잠기는 바위를 말한다.

사업비 3억6000만원이 투입된 등대는 직경 1.2m, 높이 13.2m의 강관파일로 만들어졌으며, 15km 떨어진 곳에서 조업하는 어선들도 불빛을 흔히 볼 수 있다.

김동식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은 "서·남해 주요 항로상에 항로표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해양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